

불법행위 일삼던 환전소 무더기 적발...관세청, 107개소 단속

한달간 집중 단속서 허위장부 작성, 타인명의 도용 환전소들 덜미 적발된 대표자들은 중국인...영업정지·등록취소·형사처벌 등 조치

환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타인명의를 도용해 영업행위를 하던 환전소들이 무더기로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한달여간 집중단속을 실시,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등록된 환전소는 1480개소에 이르며 이 중 관세청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

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 환전소(14개소) ▲매각한도(미화

4000달러) 초과 환전소(5개소)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이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인 운영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26개소 모두 대표자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 명동 소재 A환전소는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뒤 보고하다 적발됐고 서울 마포의 B환전소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4000달러를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쪼개기' 수법으로 환전거래내역을 위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게 대해 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형사처벌 등 범죄경중에 따라 강력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

는 '영업정지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8월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면서 "적발된 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신나는 고무신던지기 놀이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울산 동구 화정가족문화센터 3층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와 함께하는 한가위 체험 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고무신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

경찰, 청소년 노리는 온라인 불법 도박 6개월 특별단속

내년 3월까지...캐주얼게임·스포츠도박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청소년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 광고 등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불법 광고 등이다.

경찰은 또 사이버도박을 벌이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도박을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즉결 심판이 청구되거나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까지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를 모집하는 행위는 청소년이라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에 대해 입건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 기관에서 치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JMS 2인자 정조은, 정명석 성범죄 일부 인정...“여신도 말 거짓 아냐”

“과거 정명석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78)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44)이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6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 B(61)씨 등 조력자들에게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조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정조은은 “제가 많은 애착을 갖고서 교회에 대해 이뤄는 것들이 많은데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여신도 3명이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

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여신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면 지난 3월 20일 전체 앞에서 발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년 동안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범행을 묵인했고 실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증인 신문에서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대신 말한 정조은은 “과거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신도들에게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깨닫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니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잡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